

# “전남도, 무안공항 활성화 사업 발굴 적극 나서야”

## 도의회 공항 활성화 특위 첫 회의 광주군공항 이전문제에 뒷전 지적 “정부와 소통 기반 해결방안 모색” 도민이익 최우선 전향적 자세 필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남도가 광주군공항 이전을 통한 통합과 별개로 전향적인 자세를 통해 다양한 사업 발굴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는 지난 26일 회의에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첫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나광국 특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무안2)을 비롯해 특위 위원과 장현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 주순선 관광체육국장, 유호규 건설교통국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업무보고는 집행부의 군 공항 이전 업무추진 현황과 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 현황,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시설 확충 및 정기선 유치 방안 등의 보고와 특위 위원들의 종합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특위 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중앙정부

이전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의 쟁점을 떠오르며 광주·전남 이전투구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나 위원장은 “광주군공항 이전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의 충분조건이 아니다. 집행부는 군공항 이전을 통한 통합에만 집중하는 등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에는 뒷전”이라며 “전남도 공직자로서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전향적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가 군공항 이전문제를 거론하고 나서자 적극적으로 이전에 나선 전남도의 태도도 꼬집었다.

나 위원장은 “4차·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 계획 수립 당시 전남도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등 제 역할을 하지 않았으나, 6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이후 광주시에서 이전 문제를 거론하자 기다렸다는 듯 함께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공항을 반대하는 무안군이 무안공항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군 공항이 이전되면 장밋빛 미래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며 오해와 갈등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며 “군 공항 이전을 밀어붙이며 무안공항 활성화에 대한

책임을 모두 무안군으로 전가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전과 별개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사업 발굴에 전방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는 나광국(무안2), 모정환(함평), 조옥현(목포2), 박문옥(목포3), 정길수(무안1), 최미숙(신안2), 신승철(영암1), 장은영(비례), 손남일(영암2), 박원중(영광1) 의원 등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코로나 사태 이후 회복이 더딘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오지현 기자

## 광주시, 내달까지 도시공원 수경시설 운영

수완호수공원 음악분수 등 19곳 광주시가 짙은 더위를 피해 시원한 물·그늘·바람을 찾는 시민들을 위해 도시공원 내 수경시설 19곳을 8월 말까지 운영한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다음달 말까지 △바닥분수 10곳(푸른길공원, 상무수변공원, 우산공원, 일곡제1공원, 신웅빛고을공원, 중의공원, 들샘공원, 쌍암공원, 운남공원, 화전공원) △음악분수 1곳(수완호수공원) △폭기분수 4곳(중앙공원, 물빛공원, 쌍암공원, 두산공원) △계류 2곳(평화공원, 고래실공원) △벽천분수 2곳(평화공원, 중앙공원) 등 17개 공원 수

경시설 19개소를 운영한다. 바닥분수는 쌍암공원·운남공원·화전공원에서 운영 중이며, 이달 말부터 푸른길공원·우산공원·일곡제1공원·신웅빛고을공원·중의공원·들샘공원·상무수변공원까지 단계적으로 가동해 8월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바닥분수 가동시간은 낮 시간대를 위주로 하루 3~9회, 회당 30~1시간씩 가동할 예정이며 날씨와 온도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광주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바닥분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노병하 기자

## 광주시, 전기굴착기 보급 확대... 최대 5천만원 지원

광주시가 대기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되는 노후 건설기계 감축을 위해 친환경 전기굴착기 보급을 늘린다. 광주시는 29일부터 ‘2024년 전기굴착기 보급 지원사업’의 지원 규모를 기존 6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한다. 지원 가능한 기종도 케이블형 3종이 추가돼 모두 14종(케이블형 6종, 배터리형 8종)을 지원한다. 전기굴착기를 신규 구매한 개인, 법인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차량 규격과 성능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달라

진다. 대당 940만~5000만원을 지원하며, 한 신청자가 여러 대를 신청할 수도 있다. 전기굴착기는 경유굴착기 사용에 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으면서 안전사고 위험도 낮고 유지비도 절감할 수 있다. 신청은 9월 30일까지 등기우편이나 ‘문서24’를 통해 광주시 기후대기정책과로 신청서를 보내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선착순이며, 신청일 기준 거주지 또는 사업자등록지가 최근 연속 6개월 이상 광주시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노병하 기자

## 전남 연기캠프 입소식 환영해~ 여긴 너희들의 무대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9일 해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제13회 최수종과 함께하는 전남 연기캠프’ 입소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수종과 함께하는 전남 연기캠프’는 8월 3일까지 5박6일 일정으로 개최된다. 전남도 제공

## ‘최수종과 함께하는 연기캠프’ 해남서 개막

배우 최수종·현직 전문가 참여 5개 분반... 연기 지도·영상 제작 전남도가 K-콘텐츠를 이끌 청소년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제13회 ‘최수종과 함께하는 전남연기캠프’가 29일 입소식을 시작으로 6일간 진행된다. 전남도가 주최하고 (사)전남영상위원회가 주관하는 ‘전남연기캠프’는 엔터테인먼트를 꿈꾸는 전남 청소년 50명을 대상

으로 해남문화예술회관과 해남유스호스텔에서 펼쳐진다. 전남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인 배우 최수종과 현직에서 활동 중인 각 분야 전문가의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연거분, 영상제작반, 연극반, 뮤지컬반, 크리에이터반, 5개 분반별로 진행한다. 이날 입소식을 시작으로 친구, 가족을 초대해 청소년이 캠프 기간 만든 영상작품, 숏폼콘텐츠, 연극과 뮤지컬 무대를 보

여주는 작품발표회도 가질 예정이다. 올해는 특히 크리에이터를 선호하는 청소년을 위해 1인 크리에이터반을 신설해 청소년이 영상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직접 배우고 체험할 수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입소식에서 “K-콘텐츠의 주무대로 떠오르는 전남의 주인공이 바로 연기캠프 참여자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고, 특히 전남의 영상문화 발전과 영화산업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 2024 송산 근린공원 물놀이장

2024. 7. 27.(토) - 8. 11.(일)

\* 기상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무료  
개장

**운영시간** 10:00 ~ 17:00  
\* 매주 월요일 휴장, 기상악화시 휴장

**이용방법** 온라인 예약 접수 (회차당 300명)  
\* <http://www.송산근린공원물놀이장.co.kr>  
(7월 22일 월요일 09:00 부터 예약가능)

**이용대상** 만 3세 이상 유아 ~ 초등학생  
\* 보호자 동반 필수

**장소안내**  
송산근린공원 (광산구 송산동 176)

제 2 주차장 (광산구 송산동)  
제 1 주차장 (광산구 박호동 606-12)

**문의** 안내번호 0505-910-1001 (운영시간: 9:00-18:00)  
광산구 도시공원과 062-960-8711 (운영시간: 9:00-18:00)